

전일동향

전일대비 0.40원 상승한 1,385.80원에 마감

26일 환율은 전일대비 0.40원 상승한 1,385.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1개월물 하락을 반영해 전 거래일 증가 대비 1.90원 하락한 1,383.50원으로 개장했다. 소폭 하락 출발한 환율은 위험회피 심리가 위축되며 상승 전환했다. 이후 엔화의 약세에 연동되어 상승폭을 넓혔고 1,387원대까지 레벨을 높이기도 했다. 다만, 1,380원 중후반대에서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출회하며 상단이 제한됐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미국 물가지표와 BOJ 통화정책회의 등을 경계하는 관망세에 1,385원을 중심으로 횡보하며 거래되었고 1,385.8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4.4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1.89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83.50	1387.30	1382.80	1385.80	1385.40
	엔화	899.87	904.06	895.71	901.27	-
	유로화	1502.40	1505.73	1499.51	1504.42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7	-5.46	-13.49	-27.53
	결제환율(수입)	0.04	-4.65	-11.84	-24.21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험선호심리 회복에... 1,38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85.80) 대비 0.80원 하락한 1,382.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심리 회복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 압력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는 예상에 부합한 PCE(개인소비지출)에 연준의 연내 2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었다. 미국 6월 헤드라인, 근원 PCE는 각각 전월대비 0.1%, 0.2% 상승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전년대비로는 2.5%, 2.6%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 소폭 상회했다.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에 미국 2년 국채금리는 4.75bp, 10년 국채금리는 4.68bp 하락하기도 했다. 엔화는 미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상승했다. 한편 뉴욕증시는 낙폭에 대한 되돌림 등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 회복에 따라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수 규모 확대, 월말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등에 따라 하방 우세 흐름이 전망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 유입은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79.50 ~ 1387.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74.7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80원 ↓
	■ 美 다우지수 : 40589.34, +654.27p(+1.6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7.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998 억원